

시간강사, 교원지위 보장해야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개선안 발표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 신설... 소청심사청구권도 보장 불리한 처분에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특권 보장 근무시간 매주 6시간 이하 원칙...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공개됐다.

입법 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열악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과 현행법이 아닌 경우 학교장 등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된다.

강사 임용원칙도 개선됐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연구연수의 경우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이 적용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임용기간에 관해 불거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토록 했다.

예외 사유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

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의 경우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이 같은 사유에 교원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의 복무 규정도 제시했다.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 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유예강사법)을 준용한다.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와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개정과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협의체는 확정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이번 달 초까지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것으로 보인다.

뉴스



치솔모에 천연치약이 코팅된 일회용 칫솔을 개발한 김건우 씨.

“단순함이 세상을 바꾼다”

전주대, 8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수행

대학생들이 대학의 맞춤형 창업 플랫폼·토달 솔루션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고 있다.

올해 2월,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김건우 대표(SCU)는 최근 ‘단순함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로 출시된 일회용 칫솔을 개발, 2018년 창업하여 현재 월 매출 1천만원을 올리며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텔경영학과 재학 중, 싱가포르 호텔에서 인턴십을 하다 객실에 손님들이 쓰고 남은 치약과 칫솔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 김 대표는 치약을 칫솔에 코팅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일체형 칫솔을 제작하였다. 또한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물이 없어도 양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순하여 판매에 유리하게 받고 있다.

대학의 맞춤형 창업교육, 학생 창업동아리 등의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만들고

전주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4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마케팅 등의 창업 노하우를 배웠다.

김건우 대표는 “교육부터, 사업화자금, 창업보육공간까지, 맞춤형 창업지원 플랫폼이 구축된 전주대학교 덕분에 단순한 아이디어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며 “현재는 베트남 시장개척 등 해외 시장개척 등 사업화 관료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올해 전국 43개 대학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주대는 호남권 유일하게 본 사업 시작년도인 2011년부터 8년 연속 수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 개발지구내 학교설립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주개발지구 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부에 제출한 전주혁신도시2중학교(가칭) 및 전주봉암중학교(가칭), 전주세내유치원(가칭) 설립안이 이번 주 개최 예정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전주혁신도시2중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주완주혁신도시 내 온빛

중학교 과밀해소와 인근 만성도시개발지구 유입학생을 분산배치하기 위해 오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8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봉암중학교는 전주00부대이전부지도시개발사업구역(일명 전주에코시티) 내 전주화정중학교(2020.3. 개교 예정, 31학급-특수1학급 포함)에 이은 두 번째 중학교로 전주에코시티 내

유입학생을 원활하게 배치하기 위해 오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1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주세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인 전주혁신도시개발지구 내 설립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2021.3. 개원을 목표로 10학급(유아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호원도시개발구역 내 가장 전주효천초등학교는 지난 해 12월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설립을 승인받아,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중이다.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전주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안(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전주봉암중학교, 전주세내유치원)이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다면, 전주개발지구 내 교육여건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작업치료학과, 국내·국제 교육인증 획득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가 최근 국내 및 국제 교육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은 전국 작업치료학과 개설대학을 대상으로 학과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지도체계, 교원자질,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31개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광대 작업치료학과를 교육인증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했다.

전 영역에 걸쳐 우수 및 충족 요건을 획득한 원광대 작업치료학과는 대

내적으로 작업치료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체계적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과 2,800시간 이상의 작업치료 교육과정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작업치료사연맹 인증까지 받아들여 졸업생들이 국외로 취업 또는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작업치료학과장 우희순 교수는 “2014년 신설돼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원광대 작업치료학과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점에서 작업치료 주요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유례없는 성



원광대 작업치료학과 수업사진.

과를 이룩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작업치료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증 의미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작업치료교육인증과 세계작업치료사연맹 인증은 향후 7년간 유지되며, 2025년 재인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익산=우병희 기자

김승환 교육감, 직원조희서 전북교육의 꿈 실현 강조

김승환 교육감이 직원조희서를 통해 전북교육의 꿈에 대해 강조했다.

3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9월 직원조희서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자 김승환 교육감 3기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김현승 시인의 ‘플러타너스’라는 시를 소개하며, 전북교육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꾸는 꿈은 혁신교육의 완성”이라면서 “혁신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움은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배움에 호기심을 갖고 배움에 기대를 걸고 배움의 감격에 휩싸이는 그런 교육, 그것을 우리는 혁신교육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또 하나의 꿈은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행복’임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 전주매일 창간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 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1 ~ 9.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